



미학 이론을 적용한 야간관광의 개념화와 적용모형 제안*

Conceptualization and application model of night tourism using aesthetics theory

김성민** · 이훈***

Kim, Sung-Min · Lee, Hoon

요약: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미’를 추구하는 것이며, 인간은 미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시각은 인간의 감각 기관 중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를 지각하고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광객은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미학적 욕구에 따라 도시경관을 경험하는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의 아름다운 빛으로 밝혀진 도시를 관광한다. 최근 야간관광(night tourism)은 도시의 매력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니콜라이 하르트만이 제시한 미학(aesthetics)적 논의와 도시공학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야간관광의 개념화와 적용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르트만이 주장한 현상관계(phenomenological relation)와 성층구조(stratified structure)를 적용하여 야간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며, 다차원적 경험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야간관광은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요소는 ‘전경’에 해당한다. 전경은 실제 관광지 유형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시가지, 축제 및 이벤트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요소는 야간관광 경험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후경’을 의미한다. 후경으로서 주관적 요소는 ‘디자인(design)-형태(form)-감정 및 경험(feeling, experience)-공간의 본성(nature of space)’의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디자인은 I층 단계로 빛과 조명을 직접 표현하여 물리적 실체를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야간경관, 색채, 빛과 조명 요인으로 구성된다. 형태는 II층 단계로 공간의 기능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의 성질이나 가치를 반영한다. 이 논문에서는 야간관광의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요인으로 구성된다. 감정 및 경험은 III층 단계로 관광객이 야간관광지를 방문하여 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감정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탈성, 신기성, 놀이성 요인으로 구성된다. 공간의 본성은 IV층 단계로 도시의 본질과 도시가 추구하는 예술적, 도시 경관적 이상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 정체성, 도시관광의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구성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야간관광에

Received November 04, 2022 Revised November 25, 2022 Accepted November 28, 2022

* 이 논문은 주저자인 김성민의 박사학위논문(2021)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제92차 부산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2018-글로벌박사양성사업).

This paper was written based on the Docto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This paper was prepared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paper that presented at the 92nd TOSOK conferen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8-Global Ph.D. Fellowship Program).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학과 박사. whoaasm@naver.com

Ph.D,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hoon2@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야간관광, 야간경관, 미학, 니콜라이 하르트만, 현상관계, 성층구조

***ABSTRACT:** Humans have a natural proclivity for 'beauty' and a strong desire for it. Because vision is such an important part of the human sense organs,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perceiving and recognizing beauty. When visiting tourist attractions, tourists cannot escape the urban landscape based on their aesthetic needs. Night tourism, in particular, is emerging as a new concept as tourists tour the city illuminated by beautiful lights both at night and during the day. As a resul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conceptual model of night tourism from an emotional rather than a functional standpoint, using an aesthetic concept that has recently emerged as a result of philosophical discussions on aesthetics in the field of art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urban engineering. This study defines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 composition b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night tourism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relation and stratified structure proposed by German philosopher Nikolai Hartmann. The creation process of night tourist attractions can be transformed into 'nature of space-feeling and experience-form-design' using the conceptual model derived from this study. This presen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night tourism, which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Key words: Night tourism, Night landscape, Aesthetics, Nicolai Hartmann, Phenomenological relation, Stratified structure

I. 서 론

야간경관은 관광객을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의 아름다운 빛으로 밝혀진 도시를 활동하게 만든다. 전 세계 대도시들은 1800년대부터 경관에 관한 관심을 시작으로 1970년대부터는 국토 경관 관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최근 대도시에서는 야간경관 관리를 집중하고 있다(이광국 외, 2015). 이에 따라 정책적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성민, 2021).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리옹은 1980년대부터 체계적 도심 야간경관 관리를 위해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원칙을 세웠다(김정아, 2003; 심윤선, 2020). 이후에는 도시 관광지를 중심으로 빛 전문가와 위원회를 통해 도시조명, 정책, 계획 등이 이뤄지고 있다. 야간경관은 도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한편 도시에서는 야간활동을 강조함으로써 관광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야간문화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야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Chang & Hsieh, 2006; Lee et al., 2008), 이벤트적 요소뿐만 아니라 화려한 밤의 경관을 통해 '밝은 빛의 대도시'로서 지속적인 매력이 되고 있다(Shaw 2018; Smith & Eldridge, 2021). 또한, 도시는 상업적인 조명 및 일루미네이션 광고를 통해 미학적 경관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객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은 일루미네이션 광고뿐만 아니라 빛 축제처럼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볼거리며, 그들은 야간관광을 즐기기 위해 더 오랫동안 도시에 머무른다(Giordano, 2018). 도시는 늦은 저녁 뮤직 이벤트나 페스티벌이 개최되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Eldridge & Smith, 2019; Mariani & Giorgio, 2017). 이러한 야간활동은 도심 젊은이의 소비, 놀이, 쾌락의 장소가 되어가며 새로운 소비공간으로 가능하게 만든다(Chatterton

& Hollands, 2003).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미(美)를 추구하는 것이며, 누구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자 한다(박정훈, 2019). 미학이란 예술, 감각, 아름다움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서 인간의 감성적 인식이다(김을, 2010). 미학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은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Platon)에서부터 시작된다. 플라톤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곧 ‘미 자체의 이데아’라 주장한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플라톤과 달리 예술적 행위를 묘사 또는 모방으로 이해하며 모방 개념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칸트(Immanuel Kant)는 취미 판단에서 쾌적과 선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쾌적은 욕망과 결부되는 감각이며, 선은 도덕과 결부되는 의지이다(강대석, 1984). 또한, 그는 ‘마음에 들’이라는 미를 감각자극과 감동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 헤겔(Hegel)은 오늘날 거론되는 미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과거의 철학은 세계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면 헤겔은 존재를 절대정신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또한, 그는 칸트의 주장과 달리 자연미보다는 예술미를 우위에 두었다.

한편, 독일의 철학자 니콜라이 하르트만(Nicolai Hartmann: 1882-1950)은 미학 철학자들과 다른 시각으로 미학에 접근하였다. 그에 따르면, 예술적 미는 미의 창조자와 감상자 모두의 정신적 상태와 자세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자의 것이라고 주장한다(Hartmann, 1997). 또한, 그는 ‘미’라는 예술적 본질이 주체인 작가나 감상자 또는 대상인 예술작품이 아니라 그 상호 간에 관계하는 현상관계(phenomenological relation: 표현체계)에 있으며, 이는 복잡하게 연결되는 성층구조(the stratified structure: 존재구조)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한 현상관계는 아름다움이 작품 자체 혹은 감상자의 주관이 아니라, 감상자와 작품 사이에 직관적 인식 관계가 성립되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성층구조는 눈에 직접 보이는 물적 층

위에서부터 인간의 깊은 내면을 구성하는 정신적 관계 층위까지 복잡한 계층구조인 ‘성층구조’를 갖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술의 한 분야로서 건축을 미학의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설명하였다(권태일, 2013).

한편, 관광객은 관광 활동을 할 때 관광지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느끼고 이를 경험한다. 즉 인간의 감각 기관 중 시각이 차지하는 부분은 중요하다. 관광 활동에서 1차적으로 인식되는 경관은 인간의 눈앞에 전개된다는 점에서 경치나 풍경으로 이해되며, 이는 감각 기관인 눈을 통한 시각의 의미를 함축한다(임승빈, 2008; 김성민, 이훈, 2020에서 재인용). 도시경관은 하나의 절대적인 시각 대상으로서 환경구성 요인이다. 특히 관광객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환경색채가 일정한 시각적 균형을 유지할 때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전달받는다(박연선 외, 2015).

그렇다면, 미학적 사색은 도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미학의 영역은 예술작품이나 행위에 국한해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건축과 도시경관이 도시 계획 전체에 걸쳐 있으며, 미학의 대상이 미적 일반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과 대규모의 도시경관 전체를 포함하는 영역이 모두 시각적 미에 포함되는 영역이 된다(민주식, 1993). 특히 사람이 느끼는 미적 감각은 야간에 더 주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야간에는 이성적 판단 보다 감성적 판단을 하게 하는 경향이 높아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Huang & Wang, 2018). 주간 도시경관은 모든 자연과 인공환경을 가감 없이 인지할 수 있지만 야간에는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여 볼 수 있으며, 밤에 도시는 인공조명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대상만을 나타낼 수 있다(김성민, 이훈, 2020; 차주영, 2012). 즉, 빛으로 밝혀진 도시의 야간경관은 사람들에게 다채로운 풍경을 제공하며,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도시경관은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는 관광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 야간경관을 중심으로 나타난 야간관광(night tourism)은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 야간관광의 개념은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빛으로 밝혀진 야간경관은 도시를 깨어나게 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도시의 야간경관은 도시민에게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줄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는 관광 행동에 중요한 도시 공간의 역할을 한다. 이에 야간관광지는 다양한 의미 공간으로 재해석되어 도시 문화적 요소가 된다. 특히 관광산업 입장에서 기존 야간경관을 가진 관광지가 활성화되면서, 야간관광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 세계 도시에서는 야간관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한 전략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야간관광은 경험적, 문화적, 학문적, 정책적 일부분으로서 강조되고 있다(Dell'Aria, 2021). 또한, 도시와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야간시간대의 활용 정도와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야간경관의 양적, 질적 성장이 요구된다(양정순, 2016).

한편 최근 우리나라 야간관광의 정책들은 단순히 기능적 측면에 맞춰져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국내 야간관광명소로서 야간관광 100선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으며(한국관광공사, 2021.09.17.),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야간관광지 선발은 공급자 관점과 관광객 수요를 통한 경제적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관광학 분야에서는 야간관광이 학문적 연구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적 정립 또한 정서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 맞춰져 있다. 관광객은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미학적 욕구가 강해진다. 이때 시각적 감각이 주요한 감각 기관이 된다. 도시의 경관은 인간의 눈앞에 전개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시각적 감각은 우리의 직관적 정서에 직접 작용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하르트만이 제시한 미학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토대로 야간관광에 대한 개념화와 적용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II. 하르트만의 미학 이론 고찰

1.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미학 이론

미학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은 고대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된다. 플라톤(Platon: BC 427~347)은 “인생이란 아름다움을 조건할 때, 그때 비로소 살 만한 가치가 있게 된다.”라고 주장한다. 아름다움에 이처럼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후에 아름다운 예술(schön Kunst)이란 지칭을 획득하게 비판한 철학자는 고대 철학자 중 플라톤뿐이다. 또한, 그는 모든 현상 중 아름다운 것만이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며, 가장 아름다운 것이 곧 ‘미 자체의 이데아’라 주장한다. 미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와 일치하는 것으로 플라톤에 따르면 최고의 진리다. 요컨대 진, 선, 미는 궁극적으로 하나이다(Hauskeller, 2004).

플라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시학’에서 미의 문제보다 오히려 예술의 문제를 다루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예술적 행위를 묘사 또는 모방(mimesis)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모방 개념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1700년대에 이르러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미와 예술에 관한 그의 이론을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 속에서 전개 시키면서 바움가르텐이 제시한 감성적인 지각에 연관되는 ‘취미 판단’을 그의 중심 과제로 삼았다(박경남, 2021). 즉, 주관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영국의 미학이 쾌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적) 취미 판단을 감각적 자극에 대해 느끼는 쾌감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이라고 보아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의 기쁨은 자유로운 쾌감이다. 칸트의 미학은 한마디로 ‘형식주의 미학’, ‘선형적 주관주의적’, ‘관념론적’ 미학이라 특징 지을 수 있다(Hauskeller, 2004).

이후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어떤 미적 상태이며, 느낌을 전달하는지 고민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미학을 거론하면 헤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헤겔은 ‘미학 강의’라는 책을 통해 ‘미’보다는 ‘예술’ 그리고 미 가운데서도 자연미보다 예술미를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강대석, 1984). 헤겔에 의하면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예술이 자연보다 우월하며, 자연미는 미학의 근본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서정석, 2011). 이에 따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예술이 자연의 모방이라는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또한 예술품 속의 외적·물체적 세계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정신 작용이 깃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김종대, 2014), 정신적인 것이 감각적·물질적인 것 속으로 깊이 침투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아름답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어떤 것의 아름다움은 현상하는 정신성의 작용인 것이다. 헤겔은 미학을 “아름다운 예술에 관한 학문”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예술은 미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Hauskeller, 2004).

2. 하르트만의 ‘미학’ 이론

독일의 철학자 하르트만은 후설과 헤겔의 영향을 받았으며,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형이상학 존재론’자로서 독일에서 현대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Dziadkowiec, 2011). 하르트만은 존재론과 형이상학뿐만 아니라 가치론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윤리학과 미학을 저술하였다(조정옥, 2012). 하르트만은 현대 예술 해석에 새로운 막을 열었다(권태일, 2013). 그는 아래로부터의 존재론을 시도하였으며,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에 관한 평범한 사실을 미학의 근거로 전개한다. 하르트만의 존재론은 높고 낮은 존재를 언급하는 듯하지만, 각각의 존재가 약점과 강점을 소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등성을 이루고 있다. 하르트만의 미학은 잠재적으로 예술과 철학의 평등성을 전제하여 예술과 철학 간의 상호보완 관계의 필요성을 해명하였다.

하르트만의 미학은 존재의 세계를 성층구조로 보는 독자적인 존재론(ontology)을 기초로 한다(Akerma, 2008). 전통적인 미학적 입장에서는 예술작품의 형식(form)과 내용(content)을 이원대립적 사고로 보았다. 즉, 작품의 본질인 ‘미’가 ‘형식’ 내에 있는지 혹은 ‘내용’에 있는지 하는 서로 다른 미학적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작품의 본질이 작품 자체의 내재적 형식인지, 또는 작가(또는 감상자)가 의미 부여한 내용인가의 문제이다.

한편, 현대의 미학에서는 ‘형식과 내용’의 통일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나타난다. 하르트만은 성층구조론을 통해 예술작품의 형식과 내용의 통합을 주장하였다(권태일, 2013). 이에 따라 하르트만은 예술작품의 형식이나 내용 혹은 작품이나 작가의 통일문제를 객관적인 ‘전경’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후경’을 현상관계로 다룬다(권태일, 2013). 즉, 그는 ‘미’라는 예술적 본질이 주체인 작가나 감상자 또는 대상인 예술작품이 아니라 그 상호 간에 얽혀있는 현상관계(phenomenological relation: 표현체계)에 있으며, 이것은 복잡한 구조로의 성층구조(the stratified structure: 존재구조)를 이룬다고 한다(Hartmann, 1997; Poli, 2011).

종합하면, 하르트만의 미학은 세 가지의 핵심 요소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감상자 혹은 창작자와 예술작품 대상 사이에서 형성되는 미의 현상관계이며, 두 번째는 예술작품이 갖는 성층구조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작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의 가치와 종류(조형예술·회화·문학·음악·건축)를 분석하는 것이다(Hartmann, 1997).

3. 하르트만의 현상관계와 성층구조 이론

하르트만에 의하면, 예술의 본질인 ‘미’는 주체나 주관에서 독립된 객관적 예술작품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순수 주관의 산물도 아니다. 오히려 객관과 주관의 혼연한 융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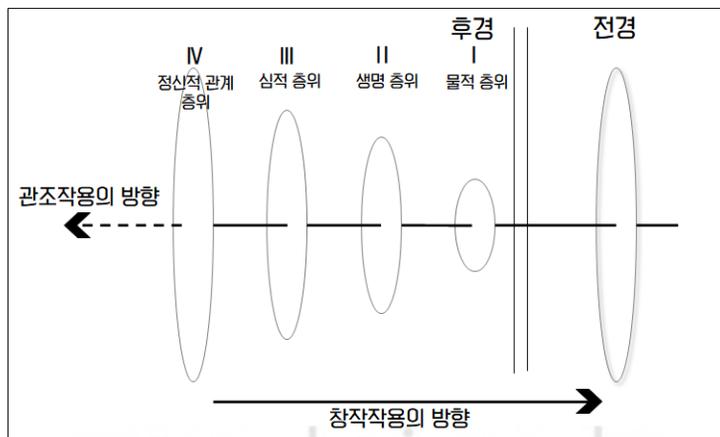
‘미’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풍경화가 갖는 아름다움은 작품 자체 혹은 감상자의 주관이 아니라, 감상자와 작품 사이에 직관적 인식 관계가 성립되어 발생한 것이다. 하르트만은 이러한 독자적인 미의 표현체계를 ‘현상관계’라 설명한다(Hartmann, 1997; Scognamiglio, 2011).

그가 주장한 ‘현상관계’는 예술작품에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전경’과 비실재적이고 주관적인 ‘후경’을 나타내며, ‘후경’ 또한 ‘전경’에 나타나는 ‘전경과 후경의 관계’를 의미한다. 회화의 경우, 2차원적으로 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색과 배치가 전경이 되며, 각종의 풍경, 대상의 느낌, 인물 등이 후경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관계는 예술작품의 전경과 후경 및 작품을 감상하는 주관이라는 세 요소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경과 후경의 현상관계는 단순히 일반적 지각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술작품에서의 후경은 외적인 물적 층위에서부터 인간의 깊은 내면을 구성하는 정신적 관계 층위까지 복잡한 계층구조인 ‘성층구조’를 갖는다. 하르트만은 이를 ‘후경 분열의 법칙’이라 불렀으며, 예술작품의 본질이 갖는 존재 구조의 속성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전

경에서부터 후경까지 다섯 개의 계층으로 분열한다고 주장한다. 후경의 제 I 층은 ‘물적 층위’로 3차원적 공간의 비실재적 빛과 그로 인해 표현된 인물의 외형과 주위에 현상을 의미한다. 후경의 제 II 층은 ‘생명 층위’이다. 공간성과는 구별되는 생동 되는 모습이 현상하는 계층이다. 후경의 제 III 층은 ‘심적 층위’이다. 살아 있는 인간의 외관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 성격, 보여지는 인격이 현상하는 것을 지칭한다. 마지막 후경의 제 IV-V 층은 인간의 내면적 본질로서, 개인적인 신념(삶의 의지)에서 보편적 이념(예술 이상의 추구)에 이르는 ‘정신적 관계 층위’이다(권태일, 2013; Hartmann, 1997). 이와 관련해서는 <그림 1>과 같다.

이처럼 예술작품의 현상관계와 성층구조는 전경과 후경의 이항관계가 아니라, 층에서 층으로 연결되는 다항관계 속에서 성립된다(Hartmann, 1997). 또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현상하는 계 계층 간에 반드시 ‘존재론적 의존관계’가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즉, 성층구조의 계층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후경의 최심층)의 신념이나 이념과 같은 정신적 측면은 물적 층위(후경의 표면층)나 형성물(전경)에 직접적으로 현상하는 것이 아닌 전경에서 후경의 최심층에 이르는 위계적 단계 속에서 각 계층이 서로



<그림 1>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예술작품의 층화구조

지지하고 지지가 되는 의존관계를 가진다. 또한, 예술작품의 현상관계와 성층구조는 감상, 즉 미를 직접 인식하는 작용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감상자와는 방향만이 정반대일 뿐 예술가의 창작 활동도 동일한 성층구조를 갖는다. 다시 말해, 예술작품의 창작과정은 후경의 맨 끝인 최심층(본질 층위)에서 시작하여, 그다음의 계층에서 전경까지를 '형성'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계층 간의 의존관계는 감상 과정과 창작과정에서 유효한 요소가 된다.

그는 미의 가치와 종류 중 건축물도 현상관계와 성층구조로 분석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권태일, 2013). 관찰자는 내부 공간 내지 외부 형태의 관찰에 있어서 관점을 바꾸면서 여러 측면과 부분을 순서대로 파악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의식이 뚜렷해진다고 한다. 건축에서는 세 가지의 외면층이 구별되는데, 첫 번째로 목적구성, 두 번째로 공간구성, 세 번째로 역학적 구성이다(Hartmann, 1997). 또한, 건물작품의 내면층은 특정한 형태로 진행되는 인간 생활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간의 생활과 본질이 그 건축물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오랜 세대에 걸쳐서 산출한 인간의 문화와 공통적 본질이다. 이는 장엄한 사원이나 성당과 같이 어떠한 이념적인 목적을 가진 모든 건축물에서 발견된다. 즉, 역사적으로 보편화된 특성과 동경을 가진 인간공동체의 뜻으로 실재하는 객관적 정신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4. 하르트만의 이론과 도시의 구조

1) 하르트만의 성층구조로 본 도시의 구조

하르트만의 현상관계와 성층구조는 도시이론과 접목할 수 있을까? 접목 가능하다면, 어떻게 접목해야 할까? 그리고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이 있을까? 하르트만이 주장한 이론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의 구조에도 적용 가능하다면,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야간관광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도시의 구조는 성층구조를 통해 '도시의 본질'의 존재방식과 표현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쉽게 인식되는 성층구조를 도시에 내재한 후경의 계층, 즉 도시 구조와 그에 따른 층위마다의 현상관계와 형성과정을 '본질의 표현체계'로 해석하여 연계해 볼 수 있다. 이는 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체성 및 본질이 정신적 관계 층위가 될 것이며, 도시경관의 모습이 전경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존재구조는 결국 전경인 실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실재적인 후경을 분석하고 표현해가는 도시경관의 창작과정을 뜻하므로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

하르트만이 주장한 최심층의 '정신적 관계 층위'는 공간의 본성(nature of space)의 근원적인 것(beginning)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도시의 본질을 나타내는 근원적이고 정신적 차원의 개념을 말한다. 즉, 도시 공간 이념의 계층으로 초개인적-역사적으로 실재하는 객관적 정신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권태일, 2013).

후경의 둘째 '심적 층위'는 감정 및 경험(feeling, experience)으로 인식(realization), 앎(knowing)이란 용어로서, 앞서 살펴본 본질 층위를 인간의 내면적인 마음으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르트만이 주장한 정신적인 계층이 심적인 생활에서 직관되어 현상하는 심적 층위와 유사하다. 즉,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은 정신적 활동이 심적인 것에 부가한 것이다.

하르트만이 주장한 후경의 셋째 '생명 층위'는 형태(form)로 도시의 기능적 가치(functional value), 특이성(uniqueness)으로 공간적 현상을 나타내는 단계이다. 즉, 비물질적인 추상적 개념으로서 디자인의 생성 단계이며 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질서가 위치한 공간의 성질이나 가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후경의 최표면층의 '물적 층위'는 디

자인(design)으로 측정 가능한(measurable), 시설(institution), 물리적 질서(physical order) 등이다. 위의 생명 층위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이 개인이 현실적으로 물리적 실체를 만드는 과정이며, 양식뿐만 아니라 구조를 갖는 구성(composition)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이는 하르트만이 도시의 후경 중 외면층(물적 층위)이라 부른 ‘목적 구성’, ‘공간 구성’, ‘역학적 구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전경인 실제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후경의 외면층에는 1) 실용적인 목적의 충족, 2) 질량의 분배와 조직을 이용한 공간 구성 방법론, 3) 도시 구성 재료(요소)를 가시적 형태로 구성하는 역학적 구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디자인 층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권태일, 2013; Hartmann, 1997).

결론적으로 도시의 창작과정은 ‘공간의 본성-감정 및 경험-형태-디자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최심층부는 정신적 관계 층위로 정신과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공간의 본성과 동일한 의미이다. 정신은 존재의 의지이자, 근원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심적 층위는 본질 층위를 인식하는 과정으로서 감정과 경험이며, 인간의 내면적인 마음으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생명 층위는 형태로 도시의 기능적 가치와 특이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최표면층의 물적 층위는 디자인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물리적 질서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실제 도시의 구현을 위한 디자인을 현실화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2) 하르트만의 현상관계로 본 도시의 표현체계

도시의 성층구조와 더불어 현상관계에서도 성립이 가능하다. 전경은 관람자의 눈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도시경관이 전경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표현체계는 결국 도시의 개발자와 이를 감상하는 감상자 그리고 대상인 도시 전체가 상호 간에 얽혀 세 요소가 관계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 실제적인 전경

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도시 전체 모습이 될 것이며, 그중 여러 가지 색과 배치 등의 객관적 실체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비실재적인 디자인적 요소, 고유한 형태, 감정과 경험, 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간 본성이 후경이 될 것이다. 제 계층은 의존 관계가 도시의 본질, 즉 공간의 본성이 현상하게 만든다. 도시 본질의 표현체계로서 현상관계는 감상의 역방향인 창작에서의 전경과 후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전경과 후경이 서로 지지가 되고 지지하는 존재론적 의존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계층 간 현상관계와 형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시의 본질이 표현된 도시 전경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III. 미학적 접근을 통한 야간 경관 이해

1. 경관과 야간경관

경관(landscape)이란 일반적으로 ‘경치’ 또는 ‘특색 있는 풍경을 가진 일정한 지역’을 뜻한다(임승빈, 2009).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이며, 이차적으로는 풍경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작용, 인간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임승빈, 2009). 경관을 보이는 풍경이라고 정의할 때, ‘보인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시각만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를 보다 일반적 어휘인 ‘지각된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꽃향기, 폭포 소리, 불빛 등과 같이 인체의 오관을 통해 ‘지각되는 풍경’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경관은 인간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의 형상, 질감, 색채, 분위기 등의 시각적 대상이 된다(김철수, 2008). 경관과 유사한 개념으로 환경 또는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환경(environment)은 시각뿐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 등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넓은 개념이다.

야간경관에 관하여 흔히 ‘야경’이라는 일상적 용어를 쓰며, 사전적으로는 밤의 경치 또는 밤의 전경을 의미한다(이임정, 최주영, 2020). 밤이란 해가 지고 난 뒤부터 날이 새기 전까지의 동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태양이 없는 동안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야간경관은 태양이 비치지 않는 밤 동안의 경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밤 동안에는 완전한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태양이 아닌 다른 조명들이 존재하여 대상을 볼 수 있도록 하므로 밤의 경관이란 의미도 가능하다. 즉, 야경은 건물 외관의 불빛, 가로등, 간판, 실내의 조명 등 다양한 조명을 통해 형성된다.

현대 도시의 야간경관은 이러한 인공조명을 근거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성격이 강하다. 이는 ‘nightscape’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다. 밤이라는 ‘night’의 용어에 조명과 연계되어 연출되는 경관이라는 의미의 ‘scape’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의도적인 조작의 개념이 내재 되어있다(오지영, 2004). 즉, 인간의 의도적인 조작이 포함된 밤의 풍경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조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상을 비추고 밝게 한다는 의미에서 도시경관 전체에 취급하게 되면 비치고 있는 부분의 공간적 확산을 형성하는 불빛이라는 것과 발광체 그 자체에 의한 불빛이라는 양면성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다.

주간과 야간의 경관은 매우 다르다. 경관의 모습 자체에 변화가 없음에도 우리가 두 경관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은 그것의 존재를 결정하는 빛의 차이 때문이다. 주간의 도시경관은 모든 자연 및 인공환경을 가감 없이 인지하는 반면, 야간의 도시경관은 조명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대상만을 보여준다(김성민, 이훈, 2020; 차주영, 2012). 즉, 밤의 도시경관은 연출이 가능하며, 도시 야간경관은 사람들이 야간에 인지하는 도시경관 요소들의 총합체이다(김성민, 이훈, 2020; 차주영, 2012).

전 세계 대도시들은 1800년대부터 경관에 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70년대부터는 국토 경관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시작된 양적 성장 위주의 급속한 도시개발은 도시 기능을 증진하고, 생활 편익을 향상했으나,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도시의 정체성을 급속히 상실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관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가 높아졌으며(최일홍 외, 2007), 2005년부터 <경관법>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7년 8월부터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서울시 도시 빛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경관계획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건축물 중심의 랜드마크 조성에서 벗어나 지역 및 구역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경관 통합계획은 아직 부족하다. 현재 세부적 사항은 대부분 시각적 요소를 다루고 있으며, 그런데도 경관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강경주, 2020). 그렇다 보니 깊이 있는 미학적 관점의 도시경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위상마저 낮아지는 문제를 보인다.

2. 야간경관의 빛과 색

우리 주변의 사물들은 빛이 있어 비로소 시각 체계에 다양한 형태와 색들로 경험된다(박현수 외, 2011). 사실 빛과 색은 인간이 의식하지 않아도 경험하게 되며 인간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인간은 시각을 통해 지각하게 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생리적 단계뿐 아니라 인식되도록 하는 심리적 과정을 겪는다. 인식의 초기 과정은 배경과 사물이 동시에 보이지만 시각에 집중되면서 선택적 수용이 이루어진다. 이때 과거의 경험과 개인적인 문화, 학습 환경, 교육의 차이로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Norman (2004)은 인간의 감성 인지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

었는데, 무언가를 경험하는 본능적 단계를 넘어 행동적 단계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이후 회고적 단계를 통해 이미지, 개인적 만족 등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조명의 색온도에 따라 감정에 영향을 받으며, 동일한 공간이라도 조명효과에 따라 인간의 심리는 변화한다(나카지마 다쓰오키 외, 1997).

또한, 이러한 빛과 조명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Brighthouse (1939)는 수백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색광을 받았을 때의 반응 연구를 통해 그 당시의 근육 활동을 조사하여 색광에 따른 반응의 차이를 밝혀냈으며, 감정적 요인뿐 아니라 문화적 요소에 따라 색채, 밝기, 채도 값의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를 밝힌 연구도 있다(Choungourian, 1968). Knez and Enmarker (1998)은 빛에 대한 정서·인지·행동적 연구로서 특정 색을 가진 조명에 대하여 남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함으로써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양한 색상의 조명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높았으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인 단서를 더 잘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Mehta and Zhu (2009)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연구 결과를 보였는데, 빨강(파랑)색이 인지 작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창의적 작업에 성능을 향상시키며, 인지적 작업에 매개효과로 영향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국내연구로 이애영 (2011) 연구자는 색채 자극이 우리의 생리적 정서적 부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뇌파를 측정함으로써 인간의 뇌를 활성화하는 매체임을 밝혀냈다. 또한, 뇌파 변화에서 색채 자극은 각성에 영향을 미치며 색광 자극은 이완에 더 효과적인 자극 방법임을 도출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는 조명의 기능적 측면(쾌적성, 안전성, 심미성, 정체성, 정보성)과 감성적 측면의 적용 비중을 연구하여 야간에 밝음만을 추구하는 환경이 아닌 빛과 어둠의 조율을 통해 감성적 체험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강운숙, 유진형, 2012).

이러한 빛과 조명은 야간에 도시를 조성한다. ‘야경’은 인공조명인 빛과 조명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대상만을 보여준다. 야경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도시를 운영하거나 걸어 다니는 사람, 도시의 한 부분을 바라보는 관광객에게 도시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고, 밝게 볼 수 있도록 조성한다(김훈, 1998). 또한, 빛과 색채 조명은 심리적 자극을 일으켜 야간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으로 하여금 감성적 경관이 이뤄지며 관광 경험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야간 경관은 미적 감각이 주요하게 나타나며, 다양한 빛으로 밝혀진 야간경관은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 낸다.

3. 관광자원으로서의 야간경관

야간경관은 관광객들에게 도시 관광의 매력적 요소가 되어, 각 도시에서는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계획들을 만들고 있다(최민아 외, 2009). 세계 최초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 프랑스의 리옹시는 쇠락했던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과 활력을 일으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차주영, 2012). 싱가포르시는 고층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을 강조하기 위해 차별화된 조명의 색을 활용함으로써 도시 경관 매력도를 높였다(차주영, 2012). 이는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로 건축물에 빛과 조명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도한 것이다(최안섭, 정연홍, 2009). 영국의 런던시가 내놓은 ‘문화와 야간 경제’라는 보고서에는 야간 계획 정책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Greater London Authority, 2017.04.), 일본의 경우도 ‘교토·하나투어로 사업’을 통해 방문객 5,000만 명 구상을 선언하고, 야간경관 계획사업을 실시하여 방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벤네 가오르, 2011). 관광객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빛과 조명으로 만들어진 야간경관뿐만 아니라 빛 축제처럼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볼거리며, 그들은 도시의 야간경관을 즐기

위해 더 오랫동안 체류한다(Giordano, 2018).

최근 우리나라 관광정책들에서도 빛을 활용한 야간관광지 콘텐츠를 개발 및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의 흥미를 불러 모은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국내 야간관광 100선을 선정하여 전국의 야간관광명소를 소개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21.09.17.). 특히 선정된 관광지는 도시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서울시 23곳, 부산 9곳, 경기도 11곳 등이다.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추천, 통신사 빅 데이터 기록을 통해 선정위원회를 실시하여 야간관광 매력도, 접근성, 치안-안전, 지역 기여도 등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야간관광지 및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야간관광지 선발은 공급자 관점과 관광객 수요를 통한 경제적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관광학 분야에서는 야간관광이 학문적 연구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적 정립 또한 정서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 맞춰져 있다. 관광객은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미학적 욕구에 따라 시각적 감각이 주요한 감각 기관이다. 도시의 경관은 인간의 눈앞에 전개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시각적 감각은 우리의 직관적 정서에 직접 작용한다.

IV. 하르트만의 이론을 적용한 야간관광 경험구조 분석

1. 야간관광 미적 구성 요소

미학의 대상은 미학의 영역을 예술작품이나 행위 에 국한해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건축과 도시경관이 도시계획 전체에 걸쳐 있으며, 자연과 대규모의 도시경관 전체를 포함하는 영역 모두가 시각적 미에 포함되는 영역이 된다(민주식, 1993). 니콜라이 하르트만은 건축물 중 사원이나 성당과 같은 이념이

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즉, 건축물도 예술의 한 분야로서 미학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권태일, 2013). 그는 또한 건축물의 예술작품 창작과정도 현상관계와 성층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존재구조를 현상관계와 성층구조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도시의 이념과 가치가 담긴 도시라면 도시 전체의 경관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빛과 조명으로 비친 야간관광지도 도시의 이념과 가치가 담긴 예술작품으로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야간관광지를 하르트만이 분석한 현상관계와 성층구조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전경: 객관적 요소로서의 야간관광지 유형

하르트만이 주장하는 전경은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나타내며, 후경은 비실재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나타낸다. 그 예시를 회화로 들었는데 보이는 여러 가지 색과 배치가 전경이 된다. 관광지에서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는 관광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관광지 유형이 될 것이다. 즉, 야간관광지의 전경은 야간관광지 중 구분될 수 있는 관광지 유형으로 가능할 것이다.

연구자나 지자체마다 관광지를 구분하는 유형은 다르다. Melian-Gonzalez and Garcia-Falcon (2003)은 관광자원을 자연 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인적 관광자원으로 구성하였으며, Jafari (1979)는 자연 자원 의존형, 문화자원 의존형, 인공시설 의존형으로 관광지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Nicolau and Más (2008)는 휴양형, 관광형, 휴양목적형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연구자 중 류시영, 김태희 (2011)는 문화체험형, 자연자원형, 행사이벤트형, 관광시설형으로 분석되었다. 정석중, 이혜미 (2002)는 관광자원 성격

에서 관광지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산업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지자체 보고서에서도 관광지 유형 및 야간 관광지 유형이 구분됨을 알 수 있었는데, 형태별, 경관유형별, 주제별, 관광목적과 활동 형태별, 야간 여가문화 생활유형 등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객들이 실재적인 구분이 가능한 야간관광지로 자연녹지유형, 수변유형, 역사문화유형, 시가지유형, 축제 및 이벤트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2) 후경 제Ⅰ층: 야간관광지의 디자인

하르트만은 후경 제Ⅰ층을 ‘물적 층위’로 보며, 3차원 공간이 빛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표현된 외형과 주위에 현상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야간관광지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을 나타내며, 야간관광지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빛과 조명으로 조성된 야간관광지가 관광객에게 조화롭게 보이는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빛과 조명이 전반적인 야간경관, (조명) 색채, 빛과 조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조화롭고 적절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

3) 후경 제Ⅱ층: 야간관광지의 형태

하르트만은 후경 제Ⅱ층을 ‘생명 층위’라 하며, 공간성과는 구별되는 생동 되는 모습이 현상하는 계층이라고 하였다. 야간관광지에서는 형태에 해당하며, 야간경관 자체의 기능적 가치를 의미하며 조명설치의 기본적 요소이다. 기존의 야간조명 설치는 두 가지 목적에서 시행되었는데, 야간의 이동이나 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로등과 같은 인공조명의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상업적 목적에서 인공조명 설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최근에는 공공차원에서 도시의 랜드마크나 역사적 건축물을 강조하여 관광지 목적으로 한 야간경관으로 확장하고

있다(김성민, 2017; 김성민, 이훈, 2020). 야간조명의 기능은 대상을 알기 쉽게 하는 쾌적성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조형미, 입체감 등의 미적 효과를 나타낸다(김현근, 김아연, 2018). 또한, 빛을 통한 기능성, 지역의 정체성, 시각적 정체성, 밝은 환경의 쾌적성,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주변 지역의 특성 구분을 위한 방향성, 보안성, 구경거리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다(이지은, 2009). 야간관광의 필수적인 요소인 경관조명의 설치는 안전성, 쾌적성, 활동성, 정체성 등과 같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충북개발연구소, 2002). 그중 안전성은 빛과 조명을 통해 보행자가 걷기 편한 공간인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었는지, 빛과 조명을 통해 차량으로부터 안전한지, 방향성을 수행할 수 있는지이다. 쾌적성은 야간관광하기에 깨끗하며, 편안하게 해주는지, 관리직원이 상주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또한, 접근성은 경관조명으로 동선의 연결이나 배치가 방문자를 고려하였는지, 빛과 조명을 통해 일반 도로와 관광지까지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조명을 통해 교통의 연계가 좋은지, 다양한 방문자(관광약자 등 포함)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야간경관의 원칙은 주간 도시경관과 일맥상통해야 하며, 낮의 도시경관이나 밤의 도시경관은 일관성 있게 지역의 대표적 특성을 표출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야간관광의 형태로는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요소로 살펴볼 수 있다.

4) 후경 제Ⅲ층: 야간관광의 감정, 경험

니콜라이 하르트만이 주장한 후경의 제Ⅲ층 단계는 ‘심적 층위’이다. 예술작품으로 따지면, 살아 있는 인간의 외관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 성격, (삶의) 실패나 성공, 운명 등에서 나타나는 인격성이 현상하는 것을 지칭한다. 즉, 정신적 활동이 심적인 것에 부가한 것이다. 야간관광 영역에 적용하면, 관

광자가 인식하는 과정으로 '감정과 경험'이다. 이는 야간관광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적 느낌, 심리적 감정, 지각에 해당한다. 도시 야간관광지에서의 인간 활동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도시는 자연적, 인위적, 장소적, 물리적, 시·공간적, 환경적, 경험적 등과 같이 여러 속성을 가지고 있어 야간관광지의 미적 접근이 다양하게 가능하다. 도시 공간 내 관광자원은 도시 미적 요소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도시에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라면, 이 공원은 도시를 아름답게 구성한다는 점과 도시관광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도시 미적 요소인 동시에 도시 관광자원이기도 된다. 한편, 도시 관광자원으로서만 역할 하는 경우와 도시 미적 요소의 예술적 가치로서만 역할 하는 경우가 있어 도시관광 미적 요소의 개념으로서 넓게 보는 시각이 제안된다(김홍범 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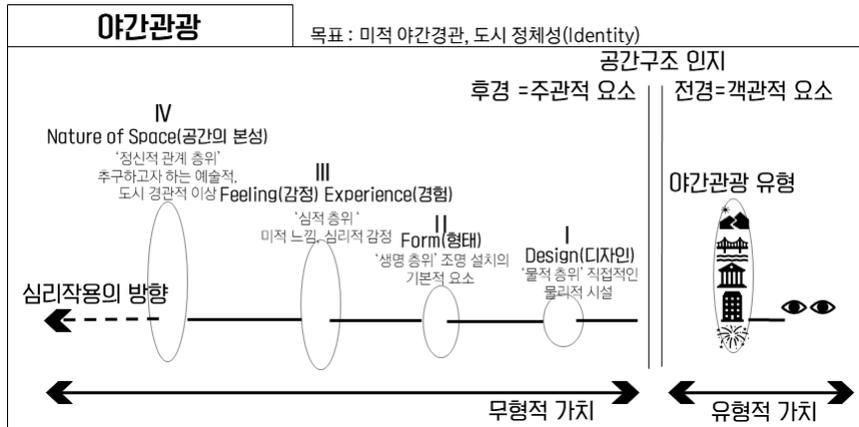
도시의 미적 영역을 구성하는 지각 및 경험적 요소들의 원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계획 관련 연구 중 도시의 경관적 구성 원리로는 통일성, 개방성, 다양성, 쾌적성, 심미성 등 시각적 요소가 있으며(정태일, 2004), 도시 미적 요소들의 구성 원리에는 심미성, 환경성, 정체성의 요소가 있다(박천보, 2007). 또한,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으로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구성 원리로 쾌적성과 정체성이 제시되고 있다(조정송 외, 1998).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야간형 축제는 빛을 통해 미적 경험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유의성과 일탈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 야간에 핵심 프로그램을 집중시키기도 한다(땡수 외, 2018). 특별한 분위기와 저녁에만 경험할 수 있는 체형 및 활동들은 관광자로 하여금 즐거움, 모험심, 사교적인, 새로운 분위기에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Eldridge & Smith, 2019). 또한, 소비학적 측면에서는 조명 심미성이 심야 소비의 쾌락적 동기 중 모험적, 유희적, 사회적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다(정윤희, 2016).

야간경관은 도시를 조명함으로써 도시에 거주하

는 사람, 도시를 운영하거나 걸어 다니는 사람, 도시의 한 부분을 바라보는 관광객에게 도시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고, 도시를 밝게 볼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하여 이를 경험하게 한다(김훈, 1998). 즉 야간관광지에서는 조명의 색채와 패턴, 구조 등을 달리해 각기 다른 느낌을 창출한다(권봉헌 외, 2011; 김태현, 박숙진, 2017). 미적 영역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에만 의존하는 개념이 아니며, 총체적 미적 접근과 경험에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야간관광지의 관광 경험에 맞게 일탈성, 신기성, 놀이성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후경Ⅳ: 야간관광지의 공간의 본성

니콜라이 하르트만이 주장한 후경 IV-V층은 정신적 제 관계 층위로 인간의 내면적 본질, 개인적 신념, 보편적 이념이다. 야간관광 영역에 적용하면, 최심층의 '영혼 정신'(psyche)은 그 도시의 본질 즉 공간의 본성(nature of space)을 나타내는 근원적이고 존재의 영의 개념을 말한다. 즉, 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적, 도시 경관적 이상을 의미한다. 지자체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 가치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서울시 도시 빛 기본계획(서울시, 2018)'에서 첫째, 서울 시민의 안전과 균형 발전을 통한 행복한 도시 생활, 둘째, 서울의 역사성과 역동성을 담은 아름다운 도시 야경, 셋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똑똑한 도시조명을 비전 및 목표로 삼았다. '서울시 경관계획(서울시, 2017)'에서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매력 있는 경관 도시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 비전 및 목표는 야간관광지와 결이 같아야 한다. 즉, 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 비전 및 목표는 도시의 예술적, 경관적 이상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도시 정체성, 도시관광의 지속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은 야간관광의 개념적 모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야간관광의 경험구조모형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니콜라이 하르트만이 제시한 미학의 철학적 논의를 토대로 도시공학의 야간경관과 관광학의 이론적 배경으로 야간관광에 대한 개념화와 적용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하르트만이 제시한 관점을 토대로 객관적 요소로서의 야간관광지 유형(전경)에서부터 야간관광지의 공간의 본성(후경)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경험구조를 도출하였다. 하르트만은 건축을 예술의 한 분야로서 미학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권태일, 2013), 현상관계와 성층구조의 층화구조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야간관광지에 적용하여 경험구조를 살펴보았다.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미'를 추구하는 것이며,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움에 감동한다. 미에 관한 질문은 고대 플라톤을 시작으로 이후의 철학자들에게도 고민의 대상이었으며 '미학'을 중심으로 학문적 연구가 이뤄졌다. 인간의 감각 중 시각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큰데 이는 인간의 지각, 인지, 태도,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관광객은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미학적 욕구에 따라 시각적 감각이 주요한 감각 기관이므로 도시의 경관은 인

간의 눈앞에 전개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각적 감각은 우리의 직관적 정서에 직접 작용한다. 관광에서 보는 것은 모든 현상에 대한 인식을 주며, 시간과 공간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미적 영역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에만 의존하는 개념이 아니며, 총체적 미적 경험에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은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작품이나 행위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건축과 도시경관이 도시계획 전체에 걸쳐 미적 일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경험구조 모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야간관광지의 창작과정은 '디자인-형태-감정 및 경험-공간의 본성'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은 물적 층위로 빛과 조명의 디자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표현된 외형과 주위에 현상하는 물리적 실체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야간경관, 색채, 빛과 조명 요인으로 구성된다. 개별 존재의 고유한 특성을 내포하는 '형태'는 생명 층위와 연계되며,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 설치의 기본적 요소 및 가치를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야간관광의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요인으로 구성된다. '감정 및 경험'은 본질 층위를 인식하는 과정, 곧 심적 층위이다. 즉, 야간관광자가 야간관광지를 방문하여 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감정이 이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탈성, 신

기성, 놀이성 요인으로 구성된다. 최심층부는 '공간의 본성'인 본질 층위로서 정신적 관계 층위와 연계하여 해석하고, 그것은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적, 도시 경관적 이상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 정체성, 도시관광의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구성된다. 여기까지가 후경인 주관적 요소에 해당하며, 전경은 객관적 요소로서 야간관광지의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실제 관광지 유형으로는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시가지, 축제 및 이벤트 유형이다. 도시 야간경관의 창작과정은 후경의 맨 끝인 최심층(공간의 본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경(야간관광지 유형)까지를 '형성'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관광자가 느끼는 과정은 방향만 정반대일 뿐 동일하다. 따라서 계층 간의 의존관계는 감상 과정과 창작과정에서 유효한 요소가 된다.

이 연구를 통한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야간관광에 대한 개념을 미학적으로 정립하고자 미학, 빛, 야간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차원적 구성개념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야간경관은 도시공학의 분야로서 계획 및 분석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야간경관이 예술적 감각이라는 미학적 측면과 야간관광이라는 관광학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시도하였다. 또한, 하르트만이라는 철학자가 제시한 현상관계와 성층구조를 통해 야간관광자 관점의 정서적 측면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전경부터 최심층의 후경까지 각 계층의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야간관광의 경험적 구조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야간관광개발자가 야간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야간관광을 통해 관광자가 만족하고 지속이 가능한 경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공급자 관점의 관광지 입지나 관광자 수를 통한 경제적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야간관광지를 선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담당 공무원 중심의 정책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관협조체계를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야간경관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기존의 야간경관을 가진 야간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도시 야간경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광학적 입장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 야간경관은 미학적 관점의 깊이 있는 논의로서 정책 공무원 외에 도시 지역의 지역민 입장뿐만 아니라 관광학 입장에서 내국인 관광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 전 세계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해외의 많은 도시에서도 야간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고 실험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의 리옹(Crouzet, 2014), 핀란드의 헬싱키는 체계적인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원칙을 세우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유럽 도시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야간경관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도시에서는 역사적 건축물 및 랜드마크적 요소의 고층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경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조성함으로써 야간경관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관광지들은 무대 장치로서 '빛 축제'와 같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비수기 관광자를 끌어들이고 있다(Colomb, 2013).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통한 체계적인 야간경관계획 관리가 필요하며, 도시마다의 정체성에 맞는 체계적인 야간관광지 계획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철학적 접근으로 야간관광 경험구조 개발을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미학적 철학 적용의 제한성이다. 야간관광에 한정하여 개념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철학 논의 중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여 원래의 내용을 다 담지 못했다는 한계이다. 둘째는 관광의 경험과 체험적 내용을 깊이 있게 담아내지 못하였다. 관광은 관광자의 체험이 중요한 요소인데, 미학적 접근에서 관광학의 특수한 체험 요소를 포

함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

Kim, Sung-min: Conceptualization, Methodology, Qualitative Analysis and Writing(Original draft preparation).

Lee, Hoon: Conceptualization, Supervision and Validation.

References

강경주 (2020).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미발행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강대석 (1984). <미학의 기초와 그 이론의 변천>. 서광사.

강윤숙, 유진형 (2012). 감성적 빛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7(2), 117-126. <https://doi.org/10.35216/kisd.2012.7.2.117>

권봉헌, 서재수, 김해룡 (2011). 야간관광 기능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10(1), 95-107.

권태일 (2013). 하르트만(N. Hartmann)의 미학(美學)으로 본 루이스 칸(Louis I. Kahn)의 '건축의 본질'의 존재구조와 표현체계.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2(4), 45-57. <https://doi.org/10.7738/JAH.2013.22.4.045>

김성민 (2017). <야간관광 동기와 행동분석: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중심으로> [미발행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_____, 이훈 (2020). 부산 야간경관 이미지의 사회연결망 분석.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9(6), 249-268.

_____, (2021). <야간관광지 경관평가지표 개발: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미(美)학 이론을 중심으로>. [미발

행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김울 (2010). <서양고대미학사상의 양상>. 한길사.

김정아 (2003). 프랑스 파리 시와 리용 시의 야간경관 개발방식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9(11), 125-136.

김종대 (2014). 헤겔의 “미학 강의”에 나타난 예술의 역사적 동일화.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30, 281-303.

김철수 (2008). <도시공간의 이해>. 기문당

김태현, 박숙진 (2017). 서울한양도성의 경관조명이 체험관광가치와 야간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13(2), 47-64.

김현근, 김아연 (2018). 도시공원 야간경관의 조성 과정과 실태 분석-여의도공원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6(2), 14-26. <https://doi.org/10.9715/KILA.2018.46.2.014>

김훈 (1998). 경관조명용 조명기구. <한국조명학회 기술교육>, 3.

김홍범, 이재상, 이정원 (2011). 도시의 미적 요소가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5(6), 35-58.

나카지마 다쓰오키, 지카다 레이코, 멘데 가오루 (1977). <조명디자인 입문> (박필제 역). 예경. (원본출판연도 1995).

류명걸 (1999). <미학강론>. 형성출판사.

_____, (2005). <미학논의>. 용성출판사.

류시영, 김태희 (2011).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관광동기와 선호 관광지 유형 차이. <관광학연구>, 35(6), 229-247.

멘데 가오르 (2011). <빛의 경관 마치즈쿠리> (김현선, 신주리 역). 날마다. (원본출판연도 2006).

민주식 (1993). 도시환경의 미학. <미학>, 18, 45-71.

박경남 (2021). 칸트의 취미비판에서 감성의 역할. <철학논집>, 65, 39-60. <https://doi.org/10.17325/sgjp.2021.65..39>

박연선, 최종석, 이진숙, 김경인, 고기영, 김현선, 이석현 (2015). <도시환경의 색채디자인>. 지구문화사.

박정훈 (2019). 미학의 시작, 감성학: 바움가르텐의 [에스테티카]에 나타난 철학적 미학의 현재적 의의.

- 〈미학〉, 85(2), 81-107.
- 박천보 (2007).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의 경관요소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논문집〉, 24, 33-34.
- 박현수, 이찬수, 장자순, 이강희, 김현택 (2011). 조명심리연구에 대한 고찰과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23-43.
- 서정혁 (2011). 헤겔과 미학: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의 생명성. 〈헤겔연구〉, 29, 11-44. <https://doi.org/10.17281/khegel.2011..29.001>
- 서울시 (2017).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서울시.
- _____ (2018).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서울시.
- 심윤선 (2020). 야간 도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빛 축제의 방향 연구-서울시의 빛 축제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9(2), 145-154.
- 양정순 (2016). 〈도시공원의 야간경관디자인 이용후 평가〉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오지영 (2004). 〈서울 야간경관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이광국, 안지윤, 양위주 (2015). 도시이미지 및 만족도에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이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7(3), 45-54.
- 이애영 (2011). 〈컬러가 인간의 생리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컬러 자극유형에 따른 뇌파분석을 중심으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이임정, 최주영 (2020).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야간경관 계획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가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2), 65-73. <https://doi.org/10.12813/kieae.2020.20.2.065>
- 이지은 (2009). 〈야간경관을 고려한 상업가로 계획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임승빈 (2008). 〈도시경관계획론〉. 집문당.
- _____ (200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석중, 이미혜 (2002). 〈관광개발론〉. 대왕사.
- 정윤희 (2016). 심야스케이트가 심야소비의 쾌락적 동기와 확장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7(4), 895-927.
- 정태일 (2004). 〈지구단위계획상의 경관계획요소 특성 연구〉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조정승, 황기원, 박재길 (1998). 한국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 미학적 사고의 가능성 모색. 〈한국조경학회지〉, 25(4), 61-81.
- 조정옥 (2012).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미학에서 예술과 철학의 상호보완성: 문학 중심의 고찰. 〈현상학과 현대철학〉, 54, 155-180.
- 차주영 (2012). 〈도시의 또 다른 얼굴, 도시 야간경관〉. AURI.
- 최민아, 노정민, 구자훈 (2009). 야간경관계획의 평가항목 선정 및 가치치 분석. 〈한국 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0(3), 107-122.
- 최안섭, 정연홍 (2009). 야경이 유명한 도시의 경관조명 고찰 및 휘도분석. 〈조명·전기설 비학회논문지〉, 23(12), 31-40.
- 최일홍, 정두용, 오민근, 이석현, 윤진욱 (2007). 경관법과 도시공간 관리. 〈도시정보〉, (306), 3-21.
- 충북개발연구소 (2002). 〈충북지역 야간관광명소 개발 전략 -야간경관요소를 중심으로〉.
- 팽수, 교만, 고민, 정강환, 김주호 (2018). 야간형축제의 개최효과에 대한 분석: 중국류양 국제불꽃축제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2(4), 1127-1144. <https://doi.org/10.18604/tmro.2018.22.4.50>
- 한국관광공사 (2021.09.17.).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야간관광 100선을 소개합니다!〉.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entid=8e982de7-a8bc-4d05-8ca6-294189f3986c
- Akerma, K. (2008). 15 toward an ontology of consciousness with Nicolai Hartmann and Hans Jonas. *Ontology of Consciousness: Percipient Action*, 449. <https://doi.org/10.7551/mitpress/7415.003.0022>
- Brighouse, G. (1939). A study of aesthetic apperception. *Psychological Monographs*, 51(5), 1. <https://doi.org/10.1037/h0093474>
- Chatterton, P., & Hollands, R. (2003). *Urban nightscapes: youth cultures, pleasure spaces*

- and corporate power*. Routledge.
- Chang, J., & Hsieh, A. T. (2006). Leisure motives of eating out in night market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12), 1276-1278. <https://doi.org/10.1016/j.jbusres.2006.10.002>
- Choungourian, A. (1968). Color preferences and cultural varia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26(3_suppl), 1203-1206. <https://doi.org/10.2466/pms.1968.26.3c.1203>
- Colomb, C. (2013). *Staging the New Berlin: Place marketing and the politics of urban reinvention post-1989*. Routledge.
- Crouzet, F. (2014). *Lyon festival of lights: how it all began*. <https://thisislyon.fr/things-to-do/festivals/festival-of-lights/how-it-all-began/>
- Dell'Aria, A. (2021). The Light Festival Phenomenon. (pp. 145-186). Springer Nature Switzerland AG. https://doi.org/10.1007/978-3-030-65904-2_5
- Dziadkowiec, J. (2011). The layered structure of the world in N. Hartmann's ontology and a processual view. *The Philosophy of Nicolai Hartmann. Berlin: De Gruyter*, 95-123. <https://doi.org/10.1515/9783110254181.95>
- Eldridge, A., & Smith, A. (2019). Tourism and the night: Towards a broader understanding of nocturnal city destinations. *Journal of Policy Research in Tourism, Leisure and Events*, 11(3), 371-379. <https://doi.org/10.1080/19407963.2019.1631519>
- Giordano, E. (2018). Outdoor lighting design as a tool for tourist development: the case of valladolid. *European Planning Studies*, 26(1), 55-74. <https://doi.org/10.1080/09654313.2017.1368457>
- Greater London Authority (2017. 4.). *Culture and the night time economy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 Hartmann, N. (1997). <Asthetik(미학)> (전원배 역). 을유문화사. (원본출판연도 1953).
- Hauskeller, M. (2004). <예술이란 무엇인가? : 플라톤에서 단토까지 이르는 미학 이론>. (이경영 역). 철학과현실사. (원본출판연도 n.d.).
- Huang, W. J., & Wang, P. (2018). "All that's best of dark and bright": Day and night perceptions of Hong Kong cityscape. *Tourism Management*, 66, 274-286. <https://doi.org/10.1016/j.tourman.2017.12.006>
- Jafari, J. (1979). The tourism market basket of goods and services: The components and nature of tourism. *Tourism Recreation Research*, 4(2), 1-8. <https://doi.org/10.1080/02508281.1979.11014979>
- Mariani, M. M., & Giorgio, L. (2017). The "pink night" festival revisited: Meta-events and the role of destination partnerships in staging event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62, 89-109. <https://doi.org/10.1016/j.annals.2016.11.003>
- Mehta, R., & Zhu, R. J. (2009). Blue or red? Exploring the effect of color on cognitive task performances. *Science*, 323(5918), 1226-1229. <https://doi.org/10.1037/e621092012-121>
- Melian-Gonzalez, A., & García-Falcón, J. M. (2003). Competitive potential of tourism in destin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3), 720-740. [https://doi.org/10.1016/s0160-7383\(03\)00047-1](https://doi.org/10.1016/s0160-7383(03)00047-1)
- Nicolau, J. L., & Más, F. J. (2008). Sequential choice behavior: Going on vacation and type of destination. *Tourism management*, 29(5), 1023-1034. <https://doi.org/10.1016/j.tourman.2008.01.004>
- Norman, D. A. (2004). *Emotional design: Why we love (or hate) everyday things*. Basic Civitas Books.
- Knez, I., & Enmarker, I. (1998). Effects of office lighting on mood and cognitive performance and a gender effect in work-related judg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30(4), 553-567. <https://doi.org/10.1177/001391659>

803000408

- Lee, S. H., Chang, S. C., Hou, J. S., & Lin, C. H. (2008). Night market experience and image of temporary residents and foreign vis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3), 217-233. <https://doi.org/10.1108/17506180810891591>
- Poli, R. (2011). *Hartmann's theory of categories: introductory remarks. The Philosophy of Nicolai Hartmann*. De Gruyter, 1-32.
- Shaw, R. (2018). *The nocturnal city*. Routledge.
- Scognamiglio, C. (2011). *Nicolai Hartmann's theory of PSYCHE. The Philosophy of Nicolai Hartmann*. De Gruyter, 141-157.
- Smith, A., & Eldridge, A. (Eds.). (2021). *Tourism and the night: rethinking nocturnal destinations*. Routledge.